

Dryden의 종교관과 문학관

송 나 현

(英文科 教授)

역대의 주요한 영국시인들 중에서 Dryden만큼 그의 예술과 생활 태도에 있어서 후세 사람들의 반감을 샀던 시인도 없을 것이다. 그에 대한 많은 변호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일반 독자에게는 그의 시가 운문화(韻文化)된 산문으로 밖에 인정 받지 못하고 있으며, 그의 정치적인, 그리고 종교적인 변절은 입신출세를 위한 염치없는 수단으로 밖에는 생각되기 어려운 것이다. 이 글은 이러한 반감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고 그를 옹호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인기없는 그의 시의 성격과 그의 생활 태도, 특히 종교관 사이에는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존재하며, 그것이 당시의 일반적 사고의 경향의 결과임을 밝혀보려고 하는 것이다.

Pope와 더불어 Dryden의 시에 대한 반발은 19세기에 절정에 달하여서, "Dryden and Pope are not classics of our poetry, they are classics of our prose."라고 한 Matthew Arnold의 말은 유명하다. 20세기에 들어와서 Dryden에 대한 재평가가 시작했고 Mark Van Doren에 의하여 그의 시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착수되었는데, 그는 Dryden의 시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Dryden was most at home when he was making statements. His poetry was the poetry of statement. At his best he wrote without figures, without transforming passion..."¹⁾ 여기에 사용된 「진술의 시(poetry of statement)」라는 어귀는 그 후 곧 Dryden뿐만 아니라 Pope을 포함한 18세기 시인의 시에 널리 적용되게 되었다. 이 말의 뜻에 대하여 논란의 여지가 없지는 않겠으나, 요컨대 그 시의 의미가 명백하다는 뜻일 것이다. 그리고 이 성격이 신고전주의 시의 특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 시대의 시는 단 시대의 그것에 비해 그 의미에 있어서 모호함, 함축성, 암시성이 적고, 표면에 나타난 의미가 그 전부라 할 수 있다. T.S. Eliot도 Van Doren의 책을 논평하면서, "Dryden's words... are precise, they state immensely, but their suggestiveness is often nothing."이라고 했다.²⁾ 신고전주의 시에 대한 경시와 반감은, 서정적이지 않다든지, 개성미가 부족하다든지 하는 이유보다도, 이 암시력의 결핍에 그 본질적인 원인이 있을 것이다. 신 비평(New Criticism)의 세례를 받은 현대 독자의 의식에 있어서는

1) Mark Van Doren, *John Dryden: A Study of His Poetry*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60), p. 67.

2) "John Dryden," *Selected Essays of T.S. Eliot* (New York: Harcourt, Brace and Company, 1932), p. 273.

시의 진정한 의미는 표면에 나타난 것 이상의 것이며, 때에 따라서는 표면상의 의미와 정반대일 수도 있고, 심지어 Archibald MacLeish의 말처럼 시라는 것은 그 무엇을 뜻해서는 안되고 다만 존재하는 것이어야 한다(A poem should not mean/But be).³⁾ 따라서 「진술의 시」라는 말은 시의 정의상 말이 안 되는 것이며 그런 시가 있다면 그것은 시가 아닌 것이다. 시의 의미는 산문으로 요약하거나 바꿔 말할 수 없다.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해석의 사교(heresy of paraphrase)」이다.⁴⁾ 시의 의미는 진술되는 바에서 뿐 아니라 진술되어지는 방법과 양식에서 찾아야 하며, 시의 내용과 형식은 분리할 수 없다. 표현의 방식이 달라지면 의미도 달라지는 것이고 같은 의미를 다른 형식이나 문체로 나타낼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신고전주의 시대의 생각은 이와는 거의 정반대였다. 이 시대의 시인이 하는 일은 어떤 내용을 그의 예술적 재능과 기교, 즉 멋진 비유, 아름다운 언어, 적절한 시형 등에 의하여 아름답게 들어 내고 고양시키는 것이었다. 아무리 훌륭한 내용이라도 표현하는 방식이 서투르면 그 빛을 잃고 반대로 미천한 소재라도 문체가 훌륭하면 고양될 수 있다는 것이다. Dryden은 Virgil의 *Georgics*를 번역하면서 이렇게 말한다 :

Nor can I doubt what oil I must bestow,
To raise my subject from a ground so low:
And the mean matter which my theme affords,
I'll embellish with magnificence of words. (III. 453-56)⁵⁾

이 귀절은 같은 의미를 여러 다른 문체로 나타낼 수 있다는 생각을 암시하고 있다. Dryden은 또한 *Annus Mirabilis*의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

So then, the first happiness of the poet's imagination is properly invention, or finding of the thought; the second is fancy, or the variation, deriving, or molding of that thought, as the judgment represents it proper to the subject; the third is elocution, or the art of clothing and adorning that thought, so found and varied, in apt, significant, and sounding words....⁶⁾

이 귀절에 피력된 생각, 즉 「시인의 상상력은 어떠한 생각을 알맞고, 의미있고 듣기좋은 말로 옷 입히고 장식하는 것」이라는 개념은 내용과 형식을 완전히 분리할 수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현대적인 생각에는 도저히 용납되지 않을 것이다. 이와같은 생각은, "True wit is Nature to advantage drest, / What oft was thought, but ne'er so well express,"라는

3) Quoted from Cleanth Brooks, *The Well Wrought Urn: Studies in the Structure of Poetry* (New York: Harcourt, Brace & World, Inc, 1947), p.151.

4) Ibid., pp.192 ff.

5) *The Poetical Works of Dryden*, ed. George R. Noyes (Boston: Houghton Mifflin Company, 1937), p.470. 앞으로 Dryden의 시는 이 작품집에서 인용하고 끝에 괄호 속에 행수를 표시하기로 함.

6) Ibid., p.25.

Pope의 유명한 귀절에도 반영되어 있다.⁷⁾ 즉 시와 자연, 또는 시와 생각은 별개의 것이고 시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자연, 또는 생각을 장식해 주고, 잘 표현해 주는 구실을 할 따름이라는 것이다.

또한 여기에서, 신고전주의에 있어서는 시의 내용, 또는 의미와 형식이 분리될 뿐 아니라 시인이 담당할 분야는 이 양자 중에서 후자인 것으로 인식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시인이 하는 일은 어떠한 새롭고 독특한 이념을 생각해 내어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통념을 아름답게 표현해 주는 일일 뿐이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도 역시 낭만주의 이래의 시인의 개념과는 상반되는 것이다. 낭만주의 이래의 위대한 시인들은 다만 말 재주에 능한 기능인이 아니라 심오한 사상과 vision을 가진 예언자이며 시인의 상상력은 인간과 자연, 그리고 인간과 신적(神的) 존재를 재 결합시키고 그림으로써 인간에게 구원을 갖다 주는 것으로 여겨 왔다. 신고전주의 시대에도 시인의 구실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몽시키는 일을 중히 여기기는 했으나 그 가르치는 내용은 시인 자신의 소신이나 그 자신이 얻은 영감(靈感)같은 것이 아니라 그 사회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전통적인 것이었다.

이와같은 사정은 Dryden의 정치시나 종교시에 전형적으로 나타나 있다. *Absalom and Achitophel*을 비롯한 소위 정치적 풍자시에서 그가 주장하고 있는 바는 그 자신의 소신에서 우러난 것이라기 보다는 왕당파가 내세우는 왕권신수설이며, 군주제도의 전통과 권위의 옹호이다. 다시 말해서 그는 계관시인으로서 군주와 왕당파를 위한 시적 대변자의 임무를 다한 것이다. 물론 그렇다고해서 전혀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한 것은 아니다. 신흥 중산계급에 대한 그의 멸시는 진정이었고, 권위와 전통을 존중함으로써 영국민을 규합하고 사회 안정을 도모한 의도도 진심이였다. 그러나 이같은 멸시와 소망은 그 만의 것이 아니라 사회의 상당한 계층에 공통적인 것이었다. Dryden의 이와같은 태도는 그의 첫번째 종교시인 *Religio Laici*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 시에서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은 보통 종교시에서와 같은, 신에 대한 뜨거운 감동도 아니고, 영감에 의한 개인적 신앙 고백도 아니라, 정치시에서 왕을 옹호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가 축하고 있는 영국 국교에 대한 옹호론이다. 당시의 정치와 종교는 매우 밀접히 연관되어 있어서 정치적 불안의 원인은 종교적 분쟁에 있었다. 따라서 Dryden은 모든 영국 국민이 나라의 정식 종교에 순종하여 안정된 사회를 이룩하기를 바래서 계관시인으로서 국교를 옹호할 필요를 느꼈을 것이다. 그는 이 시에서 국교의 교리와 맞지 않는 이신론(Deism)의 오류를 지적하고, 성경 해석에 대한 로마 천주교회의 절대적 권위를 반박하고, 특히 무식한 군중들이 성경을 제멋대로 해석하는 것을 조소하고 있다:

The book thus put in every vulgar hand,

7) *An Essay on Criticism*, 11. 296-97.

Which each presum'd he best could understand,
 The common rule was made the common prey,
 And at the mercy of the rabble lay.
 The tender page with horny fists was gall'd,
 And he was gifted most that loudest bawl'd:
 The Spirit gave the doctoral degree;
 And every member of a Company
 Was of his trade and of the Bible free. (400-408)

그리고 교리의 사소한 점으로 다투는 것보다 사회 안정이 더 중요하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

And after hearing what our Church can say,
 If still our Reason runs another way,
 That private Reason 'tis more just to curb,
 Than by disputes the public peace disturb.
 For points obscure are of small use to learn;
 But common quiet is mankind's concern. (445-50)

이 결론에서 느껴지는 것은 Dryden은 신앙에 관해서 주장할 자신의 특유한 것이 없으며 신앙에 관한 정열보다 사회 안정에 대한 열려가 더 크다는 것이다. 그에게 독특한 것이 있다면 신앙 문제에 있어서는 교회의 권위(authority)에 맡기는 태도일 것이다. 이것은 정치 문제에 있어서도 최종의 권위는 왕에게 있다고 한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이 진정한 권위에 대한 추구가 결국 그로 하여금 영국 국교를 버리고 천주교로 개종하게 했다고 대개 Dryden의 옹호자들은 말하고 있다. 이 옹호론이 전적으로 옳은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겠으나 그의 두번째 종교시, *The Hind and the Panther*에서 Dryden은 전에 없이 감격적인 어조로 그의 이러한 추구를 말하고 있다 :

What weight of ancient witness can prevail,
 If private reason hold the public scale?
 But, gracious God, how well dost thou provide
 For erring judgment an unerring guide!
 Thy throne is darkness in th' abyss of light,
 A blaze of glory that forbids the sight.
 O teach me to believe thee thus conceal'd,
 And search no farther than thyself reveal'd;
 But her alone for my director take,
 Whom thou hast promis'd never to forsake! (62-71)

여기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Dryden에게는 신앙 문제는 간단 명료한 것이다. 그것은 각자의 머리로 이러쿵 저러쿵 할 것이 아니라 성경에 뚜렷이 계시된 바를 따르면 그만이고

성경의 계시는 분명히 로마 교회 만이 하나님의 교회임을 보여 주고 있으므로 그 교회의 가르침을 따르면 된다는 것이다. 한 시대를 대표하는 시인으로서의 이와 같은 태도는 낭만주의 시인의 그것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낭만주의 시인이라면 밖에서 주어진 것에 맹종하지 않고 흥분된 정신 상태에서 초월적인 존재로부터 그가 직접 영감과 계시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예언으로서 절규할 것이다. 이와같은 시인의 모습은 이미 Plato의 *Ion*에 나타나 있다 :

For the poet is a light and winged and holy, and there is no invention in him until he has been inspired and is out of his senses, and the mind is no longer in him: when he has not attained to this state, he is powerless and unable to utter his oracles.⁸⁾

Shelley와 같은 낭만 시인은 시인에 대한 이와같은 말을 대단한 칭찬으로 받아들일지 모르나 신고전주의 시인에게는 별로 달갑지 않은 말일 것이다. 첫째로 이 의견으로는 시인은 다만 어떤 신의 매체 구실을 할 뿐이고 시인 자신의 능동적 노력과 예술적 능력이 너무 간과되고 있다. 둘째로는 이성의 작용이 마비되고 어떤 신에 사로잡힌다는 것에 반발을 느낄 것이다. 이 시대에는 제각기 신의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비국교도들 만큼 지성인의 멸시를 받았던 무리들은 없었던 것이다. 시인이 하는 일은 하늘의 영감을 받아서 무아 상태에서 종교적인 진리를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숙련된 화술로 사회 통념을 멋있게 표현하여 독자에게 즐거움과 교훈을 주는 것이다. 이와같이 시의 내용에 대한 독창성의 부인은 소위 신들림(enthusiasm)에 대한 혐오에서 직접 유래된 것이라.

그렇다고 해서 Dryden이 사회 지도자로서의 시인의 역할을 부정한 것은 아니다. 가령 *Religio Laici*의 서문의 끝에서 시인은 일종의 입법자(立法者)라고 말하고 있다 :

The Expression of a Poem, design'd purely for Instruction, ought to be Plain and Natural, and yet Majestick: for here the Poet is presum'd to be a kind of Law-giver, and those three qualities which I have nam'd are proper to the Legislative style. The Florid, Elevated and Figurative way is for the Passions; for Love and Hatred, Fear and Anger, are begotten in the Soul by shewing their Objects out of their true proportion; either greater than the Life, or less; but Instruction is to be given by shewing them what they naturally are. A Man is to be cheated into Passion, but to be reason'd into Truth.⁹⁾

그러나 Dryden이 말하는 입법자의 개념은 Phillip Harth가 적절히 지적하고 있듯이, 시인이 자신의 주관으로 독단적으로 법을 정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권위가 확립되어 있는 교훈을 그의 예술로 고양시킨다는 것이다 :

8) Quoted from William K. Wimsatt, Jr. and Cleanth Brooks, *Literary Criticism: A Short History* (New York: Alfred A. Knopf, 1957), p. 6.

9) *The Poetical Works of Dryden*, p. 162.

His [Poet's] task is to borrow his arguments from elsewhere, to enhance them with the power of poetic expression, and to fashion them into a poetic discourse whereby man may be "reason'd into Truth." If the "Legislative style" of such an enterprise reminds us of the "Magisterial authority" which Dryden condemned in Lucretius, there is this important difference: Lucretius' fault was a "positive assertion of his Opinions." Dryden's purpose is the enforcement of "Sacred Truth."¹⁰

Dryden은 여기에서 Harth가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시인이 자기 자신의 의견을 독단적으로 내세우는 것을 반대했다. 교훈의 내용에 있어서는 권위와 전통에 따르는 것이 마땅하며, 시인이 힘써야 하는 것은 내용이 아니라 그것을 나타낼 문체(style)이다. 교훈을 주기 위한 시와 감정을 표현하려는 시, 또는 즐거움을 주려는 시는 제각기 거기에 알맞는 문체가 있다. 시인은 이 문체를 능란하게 구사함으로써 회·노·애·락의 감정을 북돋울 수도 있고 엄숙한 교훈도 가르칠 수 있는 것이다. Dryden이 St. Cecilia's Day를 기념하는 시에서 묘사한 Timotheus같은 음악가와 마찬가지로 시인도 능숙한 표현력으로 독자의 감흥을 마음대로 좌우할 수 있다고 그는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시의 내용, 특히 종교적인 문제를 다루는 시의 내용에 있어서는 시인의 독자적인 생각이나, 더군다나 영감을 빙자한 주장을 내세우지 말고 권위자의 그것을 따라야 한다고 믿었을 것이다. 따라서 Dryden이 결국 로마 천주교로 개종한 것은 종교적 권위를 추구한 결과라고 정당화될 수 있고, 또한 그의 종교관이 그의 시인의 역할에 관한 생각, 즉 문학과 직접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Dryden은 이와같이 시인이 신들린 상태에 빠져서 예언자의 구실을 한다는 생각에는 동감하지 않았겠지만, 시인이 시신(詩神)으로부터 영감을 받는다는 생각은 여러 차례 피력한 일이 있다. 에컨대 *Eleonora*의 헌정사(獻呈辭)에서 흡사 *Ion*의 Socrates의 말과 같은 어조로 시작(詩作)의 체험을 말하고 있다 :

We, who are priests of Apollo, have not the inspiration when we please; but must wait till the god comes rushing on us, and invades us with a fury which we are not able to resist: which gives us double strength while the fit continues, and leaves us languishing and spent, at its departure. Let me not seem to boast, my Lord, for I have really felt it on this occasion, and prophesied beyond my natural power.¹¹

Dryden의 이 술회가 아무리 Socrates의 말과 흡사하다 하더라도 중요한 차이가 있다. Socrates에 있어서는 시인의 말은 곧 신탁(神託)이고 시가 곧 종교이다. Dryden에 있어서는 시와 종교는 같은 것이 아니고 종교는 시에 대한 비유로 사용되고 있다고 봐야할 것이다.

10) Phillip Harth, *Contexts of Dryden's Thought*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8), p. 42.

11) *The Poetical Works of Dryden*, pp. 269-70.

예언자가 성령의 영감을 받아 종교적인 예언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시인도 시신인 Apollo의 영감을 받아서 자기도 모르게 시를 읊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예언자와 시인은 비슷하기는 하지만 같은 것은 아니다. Apollo의 종교는 고전시대이나 있었던 것이지만, 신고전주의 시대에는 죽은지 오래였다.

물론 이 시대에도 때때로 시를 신적인 예술(divine art)라고 부르기는 했으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비유적인 표현이다. 이 시대에는 일반적으로 초자연적인 것, 또는 초인적인 것에 대한 경계심이 강했다. 회람·로마 시대에 시인을 창조자(poietes), 또는 예언자(vates)라 부르고 신성시하였으나 신고전주의 시대에는 시인의 신과 같은 능력을 인간의 재능의 우수성으로 돌린다:

As the names in those two learned languages, so the causes of poetry are, by the writers of them, said to be divine, and to proceed from a celestial fire, or divine inspiration;.... But I can easily admire poetry, and yet without adoring it; I can allow it to arise from the greatest excellency of natural temper, or the greatest race of native genius, without exceeding the reach of what is human or giving it any approaches of divinity....¹²⁾

이와같은 견해는, 다시 말하면 시에 관해서 “celestial fire,” 또는 “divine inspiration”과 같은 종교적 색채의 어휘를 쓰는 것은 시적 재능을 미화시키고 격상시키기 위한 비유에 지나지 않는다는 말인 것이다. Dryden이 “Apology for Heroic Poetry”에서 한 다음 같은 말도 이런 견해를 암시한다:

Imaging is, in itself, the very height and life of poetry. 'Tis, as Longinus describes it, a discourse which, by a kind of enthusiasm, or extraordinary emotion of the soul, makes it seem to us that we behold those things which the poet paints, so as to be pleased with them, and to admire them.¹³⁾

여기에서 Dryden은 시인의 상상력으로 하여금 우리 눈 앞에 실재하는 것처럼 생생하게 그 주제를 제시할 수 있게 하는 비상한 마음의 흥분 상태(extraordinary emotion of the soul)를 적절히 표현하기 위해서 일종의 신들림(a kind of enthusiasm)이라는 비유를 쓰고 있는 것이다.

Dryden이 이와같이 종교를 시의 비유로 사용한 예는 물론 산문으로 쓴 평론에서 뿐 아니라 시에서도 여러 예를 찾아볼 수 있다. 특히 *Ode to Anne Killigrew*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 주제인 Anne의 시적 재능을 그녀의 종교적·도덕적 고결성으로 환언(換言)하여 칭찬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제 4연(聯)이 가장 두드러진 예의 하나이다:

12) Sir William Temple, “Of Poetry (1690).” Quoted from *Neo-Classical Criticism 1660~1800*, ed. Irène Simon (London: Edward Arnold, 1971), p. 48.

13) *John Dryden: Selected Criticism*, ed. James Kinsley and George Parfitt (Oxford: Clarendon Press, 1970), p. 139.

O gracious God! how far have we
 Profan'd thy heav'nly gift of poesy!
 Made prostitute and profligate the Muse,
 Debas'd to each obscene and impious use,
 Whose harmony was first ordan'd above
 For tongues of angels, and for hymns of love!
 O wretched we! why were we hurried down
 This lubric and adult'rate age.
 (Nay, added fat pollutions of our own,)
 T'increase the steaming ordures of the stage?
 What can we say t'excuse our *second fall*?
 Let this thy *vestal*, Heav'n, atone for all:
 Her Arethusan stream remains unsoil'd,
 Unmix'd with foreign filth, and undefil'd;
 Her wit was more than man, her innocence a child! (56-70)

이 연의 구조를 이루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죄를 대속한다는 기독교적인 개념이기는 하나, Muse, vestal, Arethusan과 같은 비기독교적인 요소도 가미되어 있다. 이와같이 이질적인 요소가 융합되어 있는 것은 이 작품에 제시된 종교의 이미지는 실제 존재하는 종교, 즉 기독교의 그것이 아니라, 시적인 비유로 쓰기 위하여 꾸며진 가공적인 종교의 이미지가기 때문이다. Dryden은 물론 이 종교의 실재성이나 진실성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며, 그렇기 때문에 한 인간의 딸을 구세주로 떠맡들기를 신성모독으로 여기지 않는 것이다.

예술을 찬양하기 위하여 종교적 이미지를 사용한 또 하나의 예로 *A Song for St. Cecilia's Day*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이 시의 제 1 연과 마지막의 Grand Chorus에서 이 온 세상이 음악의 힘에 의해서 창조되고 종결지어지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다:

As from the pow'r of sacred lays
The spheres began to move,
And sung the great Creator's praise
To all the blest above;
So, when the last and dreadful hour
This crumbling pageant shall devour,
The Trumpet shall be heard on high,
The dead shall live, the living die,
And Music shall untune the sky. (55-63)

이 시의 구조도 물론 기독교적인 천지 창조와 종말관이지만 시의 주제에 알맞도록 상당한 수정이 가해지고 있다. 우선 시의 첫 머리를 장식하는, 조화로부터 이 우주의 구조가 시작했다(From harmony.../This Universal frame began:)는 창세론은 기독교적인 것이기보다,

혼돈(chaos)에서 질서(cosmos)가 생겨 났다는 회합의 창제 신화에 더 가까운 것이다. Dryden은 이 회합적인 질서라는 개념을 발전시켜서, 질서는 즉 조화이고, 조화가 곧 음악이라는 등식을 성립시키고, 이 음악을 최후의 심판을 알리는 천사의 나팔 소리와 연결시켜서 음악이 결국 세상을 창조하고 종결시킨다는 인상을 주는 데 성공하고 있다. 결국 여기에서도 종교적 이미지는 음악의 권능을 들어 내 보이기 위한 시적 비유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Dryden이 이와같이 종교적인 구조와 이미지를 비유를 위하여 자유로이 변형시키거나 수정할 수 있는 근본 이유는 그가 종교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권위에 위임하고 자기의 독자적인 신념을 진지하게 찾으려하지 않았고, 따라서 그러한 것을 시의 내용으로 담으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의 주요 관심은 시의 내용보다 그 표현 방식에 집중되어 있어서 이것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종교적인 소재라도 서슴치 않고 이용했다고 볼 수 있다. 그는 자신이 종교적 예언자가 아니라 예술가로 자각했었고 종교와 예술은 별개의 것으로 여겼던 것이다.

이와같이 어떤 사항을 두개의 다른 부분으로 분리시키려는 양분법(dichotomy)적인 경향은 아마도 17세기 초부터 만연하기 시작한 과학의 분석적 사고방식과 Descartes적인 이원론(dualism)의 영향에서 생겨났을 것이다.¹⁴⁾ 이 양분법에 의하여, 종교와 시, 진리와 아름다움, 내용과 형식, 교훈과 즐거움, 산문과 시, 사고와 느낌 등의 분리와 같은, 신교전주의 사조에 특징적인 분리 현상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Dryden은 시인으로서 이 각 쌍의 두 항목 중에서 전자보다는 후자를, 즉 종교보다는 시, 진리보다는 아름다움, 내용보다는 형식, 교훈보다는 즐거움에 더 큰 관심을 쏟았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그는 시인으로서 종교적 신앙의 문제에는 진지한 관심이 없어서 확고한 태도를 유지하지 않았고 다만 가장 권위 있다고 생각되는 교회를 따랐을 뿐이다. 그가 자기 자신의 생각을 강력히 주장한 것은 신앙 문제에 있어서가 아니라 문학의 문제에서이다. 그는 거의 모든 정력을 시의 예술에 쏟아 부었고 시의 이론에 관해서는 자기 자신의 생각을 시보다도 산문으로 자신있게 내세워서 영국 비평가의 시조라는 이름을 얻게 된 것이다.

14) 이 점에 관하여 Basil Willey는 *The Seventeenth-Century Background* (Harmondsworth: Penguin Book Ltd, 1934), p. 83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by the beginning of the eighteenth century religion had sunk to deism, while poetry had been reduced to catering for 'delight'—to providing embellishments which might be agreeable to the fancy, but which were recognized by the judgment as having no relation to 'reality'. As Dryden wrote in his *Apology for Heroic Poetry and Poetic Licence*, we were to be 'pleased with the image, without being cozened by the fiction.' The Cartesian spirit made for the sharper separation of the spheres of prose and poetry, and thereby hastened that 'dissociation of sensibility' which Mr Eliot has remarked as having set in after the time of the Metaphysical poets.

《Abstract》

Dryden's Attitude to Faith and Literature**Nak-Hun Song**

Dryden is probably one of the major English poets most unloved both for his poetry and his way of life. His poetry is held to be mere versification of prose, and his inconsistency in religion and politics is looked down on as a consequence of his worldly ambition. This short paper intends to suggest that Dryden's attitude to religio-political ideas is closely related to the neoclassical concept of poetry.

From the modern point of view the most obvious fault of Dryden's poetry is its lack of suggestiveness. His poetry is "the poetry of statement" and states no more than what it says expressly, while the idea of the modern reader is that meaning of a poem is not explicitly stated but indirectly suggested by its form and style. The meaning and style, or the content and form is one, and cannot be separated; the same thing cannot be expressed in different forms.

But the neoclassical period recognized the division between the content and the style and held that any subject could be made magnificent by embellishment of words. Moreover, of this divisible two aspects of poetry, a poet's duty had more to do with the style than the content, more with how than what to say. What a poet said was not his invention; it was mostly traditional and official. As the artist of language, the poet devoted himself to the refinement of style, and he was exempted from having to be original in the content, or the ideas on politics, faith, or morality.

Such a concept of a poet's role was naturally conducive to the flexibility and a lack of seriousness in his political and religious views. This seems to account for many of spurious Christian images employed as metaphors in Dryden's poems at the risk of committing blasphemy.